

02-747-1239

리더스북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며칠 전에 [비밀의 인생]을 구입하여 금세 읽었습니다. 독특한 프로젝트로 많은 이들에게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세상에서 독자로 하여금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번역서를 읽으면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본문에는 원문과 번역문이 나란히 실렸기에 원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디만, 번역과 편집이 (두 가지를 완전히 떼어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도를 지나칠 정도로 거슬렸습니다.

아래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다 적고나서 세어보니 (불행하게도) 110개에 달하더군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모두 옳은 지적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번역자 분이나 편집부 직원 분들이 사람이듯이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돈을 내고 책을 사는 독자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좋은 책이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고객입니다. 번역과 편집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요. 오히려 번역과 편집을 포함하여 오롯한 서비스를 책이라는 상품으로부터 기대하고 요구하는 소비자입니다.

출판사 홈페이지에 오탈자신고란이 있지만, 거기에 올리기에는 너무 많고 길어서 편리한 팩스로 보냅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을 더 꼼꼼히, 더 치밀하게, 더 정성들여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같이 독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답니다. 매년 나빠지기만 하는 우리나라 출판계의 거의 유일무이한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 4월 17일

대구에서 홍**

전화 : 053-850-6***

팩스 : 053-850-6***

전반적인 문제점

- (이 문단에서 오해할 가능성 있는 문장 일부 삭제) 번역문을 보면 도무지 우리말, 우리글이라고 여길 수 없는, 번역의 초보들이 보여줄 법한 어색한 직역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 동사 think, find, like, have, feel, begin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단어의 뜻을 고스란히 직역하여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관사(a), 정관사(the), 대명사(it, you, your, he, his, she, her)를 고스란히 직역하여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을 해칩니다.
- 더 매끈하게 다듬었다면 좋았을 법한 곳이 여러 곳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 "...해요", "...예요" 식의 말투가 너무 반복되는 것도 독자들을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무뚝뚝한 반말로, 때로는 경어체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지만) 여성적인 말투로 내용과 문맥에 맞게 바뀌가며 번역한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 게다가 자주 오역이 보입니다. childhood를 children으로 생각하고 오역한 것처럼 편집과 교정 과정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실수도 있고,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이나 어색한 직역에서 발생한 오역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문제점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아래에 제가 적은 사항들이 100퍼센트 옳고 번역문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보시고 타당하다 판단되면 추후 개정판을 낼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원문까지 옮겼으나 뒤쪽으로 가면서 원문은 생략했습니다. 그 대신 찾아보기 쉽도록 쪽수를 밝혔습니다.)

p. 13 중간부분.

책에서 프랭크 워렌의 서문을 읽으면서 한 번에 뜻이 들어오지 않아 머리를 가웃했던 부분. (amazon.com에 서문 원문이 나와 있더군요.)

When I realized that the man had been pretending to read someone else's secret and that the person he had left with was likely his brother, I was inspired.

~~크 남자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읽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간 남자가 크의 동생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감동했다.~~

~~그 남자가 다른 이의 엽서를 읽는 척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함께 떠난 사람이 그의 남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감동했다.~~

p. 50 상단.

부모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신'보다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듯.

I stole a picture of you from your honeymoon. It makes me happy to think that there was a time when you LOVED each other... and that you were once HAPPY.

~~당신의 신혼사진을 훔쳤어요. 그 사진은 당신이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던 생각이 들어 날 행복하게 만들어요.~~

부모님 신혼여행 때 사진 한 장을 몰래 빼냈어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했던 시절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두 분이 한 때는 행복했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져요.

p. 51 상단.

I used to come up with plans to get my parents divorced. Not because they didn't love each other, because all the cool kids' parents were divorced.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를 찾고자 했어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멋진 아이의 부모는 이혼하기 때문이라고요.~~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을 이혼시킬 계획을 세우고는 했어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저 멋진 아이들 부모님들은 모두 이혼했기 때문이었죠.

pp. 52-53.

어색한 번역이 여러 군데 보임.

~~크리고 그 돌을 호주머니와 배낭과 손에 하루 종일 들고 있게 해요.~~

그리고 그 돌을 호주머니나 배낭에 넣거나 손에 든 채로 하루 종일 다니게 해요.

~~어떤 참석자들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비밀을 해방시키는 것에 매우 감정적이 돼요.~~

어떤 참석자들은 자신의 비밀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During the few campers who refuses to let go of their stones. 원문에서 엽서를 쓴 사람이 실수로 뭔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불완전한 문장이 된 것으로 보임.

그렇다고 아래처럼 옮긴 것은 이상함.

~~이 의식 동안에 그들의 돌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몇몇 참석자들을 보면 늘 충격을
받아요.~~

~~몇몇 사람은 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죠.~~

~~다음날 아침 버스로 돌아가면서까지 돌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그
비밀들이 자기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죠.~~

~~어떤 이들은 다음 날 아침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돌들을 들고 타요. 마치 그
비밀들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p. 57.

~~I saved stamps the whole year long, so I could make my grandmother a
real crafty christmas present. She didn't make it that long. I can't stop
saving them.~~

~~1년 내내 우표를 모았어요. 할머니에게 수공예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어 주었죠.~~

~~1년 내내 우표를 모았어요. 할머니께 수공예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할머니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우표를
모으고 있어요.~~

p. 61.

~~Barnes&Noble서점에서 나눠주는 엽서에 인쇄된 아래쪽 구절은 번역할 필요 없음.
게다가 번역도 틀렸음.~~

~~If you'd like your book signed to you, or a friend, please PRINT the name
ONLY on the lines above.~~

~~당신 책을 당신이나 친구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위의 선 위에만 이름을 인쇄하세요.
구입하신 책에 저자의 사인을 받고 싶으시면, 자신의 이름이나 선물 받으실 친구의
이름을 위의 선에 적어주십시오.~~

p. 66.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당신의..."에서처럼 영어에서
튀어나오는 대명사들을 그때마다 번역하면 너무 어색한 우리말이 됨.~~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신의 가구를 '만든다' 고 하지 말아요. 당신은 가구를 사요.
크리코 조립하죠. 만드는 것은 없다가요!~~

p. 70.

~~I want to be a spy. I try no to tell many people this. I would hate to go
to my 25th renuion and have to introduce myself as an accountant and
have my former classmates ask, "What happened to you wanting to be a
spy?" And I'd have to just smile and nod. And then leave early to go on a~~

dangerous mission to save their lives from a threat they never knew existed.

~~스파이가 되고 싶어요. 되도록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려 해요. 25회 동창회에 가서 날 회계사라고 소개하는데, 예전 반 친구가 “갑자기 왜 스파이코 되고 싶어졌는데?” 라고 물으면 곤란할 거예요. 그러면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그곳을 일찍 나와 그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위험한 미션을 수행하러 가죠.~~

스파이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는 않아요. 고교 졸업 25주년 파티에 가서 직업이 회계사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반에 속했던 친구가 “스파이가 되고 싶어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을 때 그저 멧쩍게 미소지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살며시 파티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러 가기는 싫잖아요.

p. 72.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여러 번 believe in God을 신을 믿는다 라고 옮기는데 문맥상 신의 존재를 믿는다 라고 해야 옳을 듯.

I don't believe in Satan.

~~난 사탄을 믿지 않아요.~~

난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p.74 상단.

이 편지는 어린 시절 곁을 떠나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일 때에만 보내는 편지를 두고 하는 말로 보임. 그러니까 경어체로 바꿔 번역하는 것이 맞을 듯.

I only allow myself to read your letters once a year (9/17).

p. 78 하단.

마지막 문장.

I'm making a copy of this to read when I graduate law school.

~~로스쿨 졸업할 때 읽으려고 이 글을 복사할 거예요.~~

이 엽서를 복사해 놓았다가, 로스쿨 졸업할 때 읽을 거예요.

p. 85 하단.

I'm starting to realize my indecisiveness is a far worse fate than making the wrong decision.

~~내 우유부단함이 일을 망친다기보다 내가 안 좋은 운명을 타고난 거리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우유부단함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지독한 재난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p. 89 상단.

I would bring it up in arguments.

~~다들 때 그 얘길 꼬집어냈어요.~~

다들 때면 그 얘길 꺼내곤 했죠.

p. 92 상단

I'm not afraid of having stories that I won't be able to tell my grandchildren. (...) I'm afraid I'll have lived too cautiously to have any stories that will interest them.

~~손자손녀들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할 이야기를 갖기엔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살았던 걸 거라는게 두려워요.~~

손자손녀들에게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간직하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게 되어 개네들이 흥미롭게 들을 이야기가 아예 없게 될 일이 두려운 거죠.

p. 93 상단.

너무 어색한 직역인 경우. 이런 경우가 find, like, have, feel 등의 동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자주 반복됨.

My body will force me to forget too.

~~내 몸도 그녀를 잊도록 강요할까 봐 두렵다.~~

내 몸이 마음과 달리 그녀를 잊게 만들까봐 두렵다.

p. 94 상단.

In order to function in society, I have to be kept sedated (...) like some kind of wild animal.

~~사회 속에서 구실을 하기 위해선, 진정제를 투약해야만 해요. (...) 마치 어떤 야생동물같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난 계속 진정제를 복용해야만 해요. 마치 야생동물처럼.

p. 94 하단.

번역이 좀 어색함.

~~우리에게 똑같은 옷을 사 입혀서 사진 찍는 게 싫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옷을 입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똑같은 옷을 사 입혀서 사진 찍는 게 싫어요.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기에,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기에 그 옷을 입는답니다.

p. 96 상단.

커가고 있는 중이지, 이미 다 자란 것이 아님.

~~크 아이들어 잘 자라 훌륭한 젊은 여성이 된 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멋진 여성으로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걸 당신이 꼭 알았으면 해요.

p. 96 하단.

수식어가 전체를 한정하는데 부분을 한정하는 식으로 번역한 곳이 종종 보임.
~~부자가 되고 싶고 언젠가 성공하고 싶어요.~~
언젠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요.

p. 98.

Looking through it, I felt...
~~책을 다 보고 나서 오늘 내게...~~
책을 훑어보다가...

p. 100.

a dare-to-be GREAT situation.
~~엄청나게 될 수 있도록 날 도발하는 상황~~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상황

p. 103.

옆서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도 함께 번역하면 좋을 듯.

p. 108 상단.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p. 109 하단.

~~난 내가 가져야 하는 만큼의 용기가 없는 날이 오게 될까 봐 두렵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용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날이 닥치게 될까봐 나는 두렵다.

p. 109 상단.

childhood를 children으로 잘못 읽은 듯.

~~선생님이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내 아이들이 크립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내 어린 시절이 크립기 때문이에요.~~

p. 109 하단.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어요.

p. 110 상단.

틀린 것은 아니고 좀 더 나은 표현이 있을까 해서...

~~혼자 살게 될 인생~~

혼자뿐인 인생

p. 110 하단.

~~예전의 나를 그리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그 모습을~~

예전의 내 모습을, 그리고 두 번 다시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을

p. 113.

오역은 아니지만 어색해서...

~~크것을 행하라. 크것은 놀라운 것이다.~~

행동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p. 115 상단.

번역문을 읽을 때 가장 짜증나는 일은 영어의 관사, 정관사, 대명사를 모조리 번역하는 것.

~~크 비밀을 생각할 때마다 크것은 나를 웃음 짓게 만들죠.~~

그 비밀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 짓는답니다.

p. 116.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는 대학이 싫어요.~~

대학이 끔찍하게 싫다!

p. 117.

~~끔찍한 비밀은 끔찍한 사람들에게서 오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비밀은 끔찍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결국 아마도 난 그렇게 끔찍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끔찍한 사람들에게만 끔찍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밀은 그리 끔찍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아마 난 그리 끔찍하지 않은 사람일거예요.

p. 119.

find, like, have, feel 등의 동사를 직역투로 옮기면 매우 어색함.

~~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갖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나이를 먹고 주름살을 갖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이들을 갖고 싶어요. 얼굴에 온통 주름살이 질 때까지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p. 123 하단.

~~아직 다른 일을 할 계획은 없어요. 기분은 엄청 좋음과 동시에 무서워요. 이것은 나의 재탄생이에요!~~

~~모든 인류의 삶이 순수하고 투명한 자유와 같기를 바란다.~~

정해 놓은 직장은 아직 없어요. 기분이 엄청 좋으면서도 한편 두렵기도 해요.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순수하고 투명한 자유이기를 소망한다.

p. 124 상단.

~~크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우리가 임신하려고 노력한다고 믿는답니다.

p. 124 하단.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 FBI가 되려고.~~

가장 친한 친구가. (...) FBI에 들어가려고.

p. 125 상단.

~~this world has to offer를 의무의 의미로 잘못 번역하였음.~~

~~반으로 쪼개진 굴이 이 세상에서 제공해야 할 (...)~~

반쪽으로 자른 자몽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

p. 125 하단.

~~내가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하거든요.

p. 130 상단.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p. 139 하단.

~~우리 학생들 모두가 비밀엽서를 만들어서 그들의 비밀에 대해 시를 썼어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비밀엽서를 만들었고, 자신들의 비밀에 대한 시를 썼어요.

p. 191.

Waking up without you is like drinking from an empty cup.

~~너 없이 걸어가는 것은 빈 컵을 마시는 것과 같아.~~
너 없이 깨어나는 것은 빈 컵을 마시는 것과 같아.

p. 192.

I like to think of how the people who picked them up felt lucky to find them. I know I feel lucky to be rid of them.

~~그 물건들을 줍는 사람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하고 생각하길 즐겨. 그것들을 없애면서 나도 운 좋다고 느끼는 걸 알아.~~

그 물건들을 주운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았다 여길 거라 생각하고 싶어. 그것들을 없앨 수 있어서 난 정말 운이 좋아.

p. 193.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결정할 때까지 그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았다고 그가 믿도록 내버려두고 있어.

p. 194 상단.

~~우리 회사는 문서에 있는 고객들의 사인을 위조해요.~~

우리 회사는 고객들의 사인을 위조해서 문서에 사용해요.

p. 194 하단.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몰라서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요.

p. 195 상단.

~~우린 일과 아이기 있는 아줌마들이죠.~~

우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들이에요.

p. 198 하단.

~~내가 척수전문외과 의사 될 기회를 갖기 전에~~
내가 척수전문외과 의사가 되기 전에는

p. 201.

이 부분이 번역에서 누락되어 있음.
all on pink Post-it notes

p. 202.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p. 205 상단.

~~17년이 흘렀는데 내가 운 좋은 사람이란 걸 발견했어요.~~
17년이 흐른 뒤, 운이 좋은 쪽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죠.

p. 205 하단.

좀 더 우리말답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
~~넌 나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최악이야.~~
넌 만난 건 내 인생 최악의 사건이야.

p. 206 하단.

문장 전체에서 '당신'을 '너'로 모두 바꾸는 것이 좋을 듯.
~~당신은 교묘하고~~
넌 사람을 교활하게 조종하려 들고

p. 207 상단.

문맥상 엄청난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큰 돈을 내는 고객을
비꼬는 말투인 듯.

Right now a client is paying \$225/hour for me to think abou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much I love you!

~~한 고객이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기 위해~~
~~내게 시간당 225불을 지불하고 있어!~~

어떤 고객이 시간당 225불을 내게 지불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p. 210 하단.

~~부드럽고 아름다운 젊은 연인이~~

상냥하고 잘 생긴 젊은 연인이

p. 212 하단.

침대 위에서 연인과 보낸 시간을 떠올리는 내용임.

~~당신이 떠난 이후로~~

당신이 떠난 뒤 침대를 정돈하지 않아요. 어지러운 침대 위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토록 어지러운 모습이 되었는지 볼 때마다 스릴 만점이니깐요.

p. 213 하단.

~~3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쓰던 베갯잇을 훔쳤어.~~

우리가 함께 썼던 베갯잇을 30년 전에 훔쳤어. (또는 30년 전, 우리가 함께 썼던 베개를 훔쳤어.)

p. 214 상단.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지 못하므로. (사진으로 판단하건대, 남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마흔 살 된 처녀예요.~~

마흔 살인데 아직 동정입니다.

p. 214 하단.

~~나는 자유주의자이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앞길을 막아서 교통체증을 만들면
기쁘게 깔아뭉개고 지나갈 거예요.~~

나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때는
거리낌 없이 깔아뭉개고 지나가겠어요.

p. 215 상단.

담배 종이 위에 적힌 아래 단어가 빠졌음.

ICK!

웁!

p. 215 하단.

~~아빠가 돌아가실 때~~

아빠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암을 담당하는 의사를~~

암 전문의를

p. 217.

딸에게 '그녀'라고 하는 것은 이상함.

~~마치 어제 그녀가 태어난 것 같다. 토요일에 그녀는 열일곱 살이 된다. 그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 바로 어제 같다. 토요일이면 열일곱 살이 된다.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p. 222 상단.

~~이게 당신의 엽서일 거라 상상하길 좋아해요.~~

이게 당신의 엽서라고 상상할래요.

p. 224.

I won an award at work, but it really should have been the Best Actress Award for playing the part of a functional, alcoholic who isn't secretly destroying her life and can quit without help.

~~직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실 난 여우주연상을 받아야 해요. 삶을
비밀스럽게 파괴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만둘 수 있는 기능하는
알코올중독자를 연기하고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실 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야 했어요. 남몰래
인생을 망쳐가지도 않고, 언제든 혼자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는, 일상생활을
멀쩡하게 잘 영위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역을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으니까요.

p. 226.

갈망하는 그 무엇인가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아예 갈망하는 그 무엇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다는 뜻이므로.

then I get scared that this is all there is.

~~크리고 이것이 존재하는 전부인가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그 무엇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요.

p. 227 상단.

여기에서는 that을 꼭 번역해야 할 듯.

that sunrise

~~해가 뜰 때 너와 산책을 선택했다면~~

바로 그날 아침 너와 함께 산책을 했다면

p. 227 하단.

in ways I didn't even know I needed.

~~내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부분을 도와주었어요.~~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습시다.

p. 228 상단.

너무 어색한 직역.

~~우리의 차이점을 정리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화해했는데도 말이죠.

p. 228 하단.

여성들에게

여성에게 (또는 여자들에게)

p. 229 상단.

~~지난 시간 (...) 유방암 여성용 브래지어~~

지난 번 (...)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쓰는 브래지어

p. 231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듯 하지만, 그냥 직역하면 어색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For some strange reason,

~~어떤 이상한 이유로,~~

이유는 좀 다르지만

p. 232 상단.

refreshing을 상쾌하다고 번역하는 것보다 '새롭고 재미있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듯.

~~알자리가 어떻게까지 상쾌한 적이 없어요.~~

근무 중에 이토록 새롭고 재미있었던 적이 없네요.

p. 233 상단.

when 이하를 기억한다는 뜻임.

it makes me remember when I was a kid and felt safe.

~~그러면 아이일 때를 기억하게 되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어린 시절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느꼈던 때가 떠오른답니다.

p. 234.

글쓰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음.

I was a "dork" in high school. Last year I married someone who was a "cool kid". I can still tell the difference.

~~작년에 멋진 남자였던 누군가와 결혼했어요.~~

멋쟁이 인기 학생이었던 이와 작년에 결혼했어요.

~~자금도 그 차이를 말해줄 수 있어요.~~

뭐가 달라도 다르더군요.

p. 236 상단.

문장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고, 번역도 너무 어색함.

whenever music moves me with its beauty, be it sorrow or joy, I can't help but (...)

~~음악이 그 아름다움으로 날 감동시킬 때마다 음악은 슬픔이거나 기쁨이다. 그녀와 함께 보냈던 순간에 음악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음악의 아름다움에 감동할 때마다, 그것이 슬픔이건 기쁨이건, 그녀와 함께 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

p. 237 상단.

('떴다떴다 비행기' 선율에 맞춰)라고 번역문 앞쪽에 삽입해 주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번역도 손 보고.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b was sure to go

~~메리가 가는 어디든지 어린 양은 확실히 가죠~~

메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사랑에 빠진 저는 어린 양처럼 따라 가죠

p. 238 하단.

정말 우리말 같지 않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직역은 지겹습니다.

I'll finally have an excuse to slow down.

~~그래야 속도를 늦출 이유를 갖게 되니까요.~~

그래야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요.

p. 239 상단.

그들, 나, 내가, 나의 (...) 이렇게 되풀이하는 건 정말 어색합니다.

~~크들어 말하는 것처럼 (...)~~

내가 결국 미쳐버리고 말거라면, 그 꼴이 될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으니 내 손으로 목숨을 끊는게 뭐가 그리 나쁘지?

p. 239 하단.

또 마찬가지로 '내', '내 병'.

~~내 약을 먹지 않아요 (...)~~

약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로 병을 앓는 셈이 되니까요.

p. 240 상단.

I'm going to miss this.

여기에서 this가 글쓴이가 우체통에 넣어 보낸 엽서일까? 아니면 이렇게 포스트시크릿에 비밀을 담아 보내는 일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p. 244.

우리말에서는 '발견하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안 쓰죠.

Thanks for helping me to discover that.

~~그걸 발견하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그걸 알게 해주어서 (또는 깨닫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p. 252.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끝마나 '... 같아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마다 'seems...'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영어식으로 굳어진 표현은 우리식대로 풀어 써야 합니다.

nothing has ever seemed more horrible.

~~어보다 더 끔찍해 보이는 건 없었어요.~~

어보다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p. 253 하단.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의미 전달을 왜곡하거나 아예 전달하는데 실패한다면 왜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당신이 죽지 않았던 날'이란 것이 뭔지 들어오나요? 저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군요. '죽을 뻔 했는데 용케도 죽음을 피한 날'을 말하나보다 하고 말이죠. 그래야 '축하한다'는 말과 상응이 될테니까. 이런 식의 직역을 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았던 날을 기념해요.~~

당신이 다행하게도 죽음을 피한 날, 2005년 8월 31일을 축하합니다!

p. 254 상단.

the resident joker를 그냥 '어떤 놈'이라고만 번역했음. 심술궂게 남 괴롭히며 장난치기 좋아하던 놈이란 뜻일 텐데. class clown이나 nerd 처럼 워낙 미국 초중고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 번역해야 할 듯. 그래야 그런 놈이 죽었다는데도 하나도 안타깝지 않다는 뜻이 전달이 잘 될 테니까.

p. 254 하단.

to take care of him 을 '신경 안 쓰면'으로 번역한 것은 의역이라기에는 무리.
게다가 '그가'와 '그를' 식으로 반복되는 대명사들을 모조리 번역한 것들을 찾아 다
고쳐야 할 듯.

~~크가 죽어버려서 더 이상 그를 신경 안 쓰면 좋겠어요.~~

그가 죽어버려서 더 이상 뒤치다꺼리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p. 255.

여기서 'stay'는 뒤에 나오는 'kicking him out'과 맞물려서 연하인 애인을 곁에
둔다는 뜻과 함께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월요일에
그를 차버릴거예요'라고 옮기면 물리적으로 집 밖으로 쫓아낸다는 뜻이 희석될
것임.

p. 256 하단.

정말 한 번 더 묻습니다. '내 상상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요'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번역하도록
편집부에서 그대로 놓아두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I fear the loss of my imagination.

~~내 상상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요.~~

상상력이 약해질까 무서워요.

p. 256 상단.

that I never learned... or tried.

~~배우지도 않았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것이 후회돼요.~~

배우지도 않았고 배우려 노력조차 안 해본 것이 후회됩니다.

p. 259 상단.

"...해요", "...예요" 식의 말투가 너무 반복되어 지겨울 뿐만 아니라 내용상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음.

~~내가 모은 핸드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돼서요.~~

내가 모은 핸드백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어서랍니다.

p. 261.

~~크걸 우리는 데이트 강간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크건 단지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데이트 강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단지 바보처럼

당했다고 여겼을 뿐이었다.

p. 262.

~~그걸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걸론 부족했어요.

p. 263 하단.

~~또 다른 슬픔에 빠진 나를 보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슬픔에 잠기게 되었어요.

~~친구로서의 엄마를 알았더라면 좋겠어요.~~

친구로서의 엄마를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p. 266.

~~그들을 놓지 못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차마 놓아주지 못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p. 268 상단.

남자라고 했으니까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테니까.

~~네 번의 낙태와 한 번의 유산 경험이 있어요.~~

사귀던 여자들이 낙태 네 번과 유산 한 번을 하게 만들었지요.

p. 268 하단.

weed가 지갑에서 돈을 훔친다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대마초를 훔쳐 피운다는 뜻이 아닐까?

~~지갑에서 돈을 훔쳐요.~~

대마초를 몰래 훔쳐 피운답니다.

p. 269.

'동성연애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politically incorrect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게 됩니다.

동성연애자

동성애자

그리고 How many other are there? 가 내용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는 왼쪽 세로 문장처럼 빼내어 따로 번역해야 할 듯.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는 말투이므로.

p, 272 상단.

~~열일곱 살인 나는 내 인생이 실제로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열일곱 살인 지금,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려 한답니다. 하지만...

p. 273 상단.

의심스러운 말투이므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몰라요. 행복했던 적도 없는 것 같네요.~~

p. 275.

잔주름과 주름살을

잔주름과 굵은 주름을

p. 277 하단.

~~나는 혼자서 외롭고 행복하게 죽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행복하게 죽을 테다.

p. 276.

~~안됐지만, 더 이상의 '놀리움' 은 남아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더 이상 놀랄 일은 없답니다.

p. 280 하단.

어색하게 문장을 끊어서 번역하기보다는 아예 확실하게 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 좋겠어요. 그래서 내 심장의 작은 일부를 가진~~

~~그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 번 더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요. 내 마음의 일부를 아직 차지하고 있는 그녀에게.

p. 282 상단.

~~후회 속에 죽을까봐~~

후회하며 죽을까봐

p. 285 하단.

때때로 정관사 the를 고스란히 번역해야 할 때가 있는 듯.

~~난 우리 사진을 전혀 버리지 않았어.~~

난 우리의 바로 그 사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

p. 296.

그냥 취향일 수 있지만, 매끈하게 바꾼다면...

~~시간이 우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시간이 우릴 바꿀 수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았지.

p. 297.

~~난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

난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예요.

~~크런데 왜 내게 키스해주지 않아?~~

그러니 내게 키스해 주는 게 어때요?

p. 298 하단.

~~내 마음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내 진심을 털어놓지 않아요.

~~하지만 제멋대로고 고집스러운 내가 되길 기대해요.~~

하지만 으스스하고 고집이 센 내가 될 그 때가 기다려져요.

p. 299.

무생물인 업서에 적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잔짜 사람들에게~~

살아 숨 쉬는 사람들에게

p. 290.

오역은 아니지만 더 매끈하게 다듬는다면...

~~결국 지쳤고, 실패했어요.~~

기운이 빠져 실패했지요.

끝